

#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 생활의 제 문제\*

A Study on the Family Life Issues Percieved by the Middle-Class Housewives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부교수 옥 선 화  
공동연구자: 교 수 이 기 춘  
부교수 이 기 영  
조교수 이 순 형  
승의여자전문대학 가정학과  
강 사 공 인 숙

Department of Consumer and Child Stud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Ok, Sun Hwa*  
*Professor: Rhee, Kee Choon*  
*Associate Professor: Lee, Ki Young*  
*Assistant Professor: Yi, Soon Hy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Sungeui  
Women's College  
*Lecturer: Kong, In Sook*

## 目 次

I. 서 론	IV. 결론 및 논의
II. 조사 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III. 결과 및 해석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 1) To find out overall family life issues percieved by the middle-classhousewives in their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forties.

2) To examine detailed aspects related to middle years crises, leisure activities, children issues, family economy issues, and housing issues.

3) To clarify solutions to, and provide basic data on family issues raised by the middle-class families.

The middle-class housewives in their forties living in the Seoul area were the subject of the survey. The sample size analysed in this study was 422. Data were analysed by the frequency, mean, percentile, standard deviation,  $X^2$ -test, analysis of variance,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analysis of multiple regression, and Scheffé-test as a post-hoc analysi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middle-class housewives tend to give more importance on children issues, especially on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development.

Second, family cohesion of middle-class families is comparatively high and intra-familial conflict is low, and middle years crisis of housewives is comparatively low, too.

Third, the stability of middle-class families can be found in household economic management patterns. One fourth of the families own stocks and two fifths of the families own real estate except their own dwelling house. Be based on their property income add to their labor income, middle-class families are showed their economic stability, however, intra-class inequality is found, too.

Fourth, the great part of middle-class families that possess their own house, tend to be unsatisfied with their housig scale, and a half of the families expect to enlarge their housing scale for more comfortable and convient living.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은 사회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산업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의 가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는 곧 가정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별거나 이혼등 가족 파탄의 문제 라든가 과소비 현상이나 상대적 빈곤감등 가정 경제 상의 문제가 빈발하고 산업 사회에 대한 주부의 심리적 부적응, 청소년의 일탈행위, 노인문제등 수많은 가정 생활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가정생활의 문제는 각각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문제가 서로 관련되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정생활을 지지하는 물적 토대가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에 가족 구성원 사

이에 심리적 갈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가족의 응집성이 약화되며, 이러한 가족 체계의 약화는 곧 가족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연결된다. 심리적 갈등 상황에 놓인 가족 구성원이 상호간에 가정 생활에 협조할 리 없으며, 의사 소통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과적으로 가족은 산업 사회에서 그 기능이 약화되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주로 서구 사회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 된 것이며, 우리나라 가정이 어떠한 가정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의 가정생활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산층은 수적으로 다수이며, 중산층의 문화는 한 사회의 중핵 문화가 되어 그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반을 이루므로 산업 사회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다. 또한 건실한 중산층의 문화는 건전한 사회

의 기초가 된다. 이처럼 사회의 주축이 되는 중산층의 가정 생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조망한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40대는 성숙한 부모의 역할과 함께 자신의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생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로 여겨져 왔다. 중산층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과 산업화로 인한 가정 생활의 문제점의 해결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전환기에 처한 40대 중산층 주부의 문제를 파악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진단이나 미래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전반적인 가정 생활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부의 중년기 위기감과 여가 실태, 자녀 문제, 가족 응집성 정도, 가정 경제 문제, 주택 문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중산층 가정의 문제 진단과 해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가정 생활 문제에 관한 제 접근

가정 생활은 우리의 모든 생활 과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가정 생활의 장에서 가족 구성원은 상호애정과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이루고, 물질적 요건을 획득함으로써 가족의 생존 및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인간 생존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가정 생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며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이나 사회경제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각된다.

가정 생활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를 어떻게 범주화하는지가 중요한데, 가정 생활에 대해 몇 가지 이론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자본주의적 생활양식 하에서 행해지는 가정 생활에 주목하여 가정 생활을 소비 생활과 동일시하고 소비 생활의 제 영역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영역별로 범주화할 수 있다. 富崎와 伊藤(1980)는 가정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의 과정을 다면적인 것

로 보고 특히 많은 과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식 생활, 주 생활, 의 생활로 대상 영역을 좁혀 그 현상과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는 가정 생활의 실태를 직시하고 여기서 제기되는 과제에 대해 정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과학적 가정 관리론의 조류에 속한다. 이러한 관점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하에서 파생되는 가정 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모순의 근원을 명백히 하고 이를 극복하는 생활의 주체자를 형성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이 관점은 가족원 내의 문제보다는 사회경제적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두 번째로 생활 복지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생활의 질을 규정하는 제 영역 중 가정 생활과 관련된 영역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들 영역을 곧 가정 생활 문제 영역으로 보는 관점이다. Andrew와 Withey(1976)는 생활의 질에 관한 지각 척도를 영역(domain)과 기준(criteria)으로 조합된 123개의 생활 관심 영역에 관한 사람들의 느낌으로 구성하였으며, 주택, 여가 시간 활동, 가족과 함께 하는 일, 건강, 재미, 시간, 직업, 정부, 효용성, 가족, 소비자, 화폐의 12가지 영역을 생활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Campbell, Converse와 Rogers(1976)는 생활의 조건보다는 생활 경험에 초점을 두어 생활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12가지 영역 중 비노동 활동, 가정 생활, 생활 표준, 일, 결혼 등 5가지 영역을 생활의 질을 규정하는 주요 영역으로 보았다. 이기영(1984)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총 31개 생활 영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생활의 질에 기여하는 생활 영역 요인으로 경제적 생활 수준, 가족 관계, 생활 환경, 자기 성취, 생활의 자율성의 5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정 생활과 관련된 가족 관계와 경제적 생활 수준이 주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인간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정 생활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생활의 질을 통한 접근 방법과도 관련되는데,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이 인간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인간 생태학적 관점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에 관한 연구로서(Compton & Hall, 1972), 단위 또는 유기체, 환경, 그리고 이들 양자간의 상호작용의 3가지 요소를 중요시한다(Bubolz, Eicher, &

Sontag, 1979; Morrison, 1974). 첫번째 요소인 단위는 개인이나 또는 공통의 자원, 목표, 가치, 정체감이나 유대감을 지니는 복수로 구성된 집단이다. 두번째 요소인 환경은 유기체를 둘러싼 외재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적, 인지적 환경이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준다(Andrew, Bulbolz, & Paolucci, 1980). 이런 환경은 학자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략 자연적 환경, 인위적 환경, 행위적 환경으로 나뉜다. 세번째 요소인 상호작용은 요소간의 호혜적 관계를 의미하며, 단위와 환경의 교환으로부터 도출된 조직이다. 따라서 인간 생태학적 관점을 가정 생활 문제에 적용할 경우 유기체인 가족구성원 자신의 문제, 그 환경인 가족 집단, 사회집단, 물리적 환경, 자연적 환경등과 같은 환경의 문제,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가족, 개인 및 가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등 3가지 범주의 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가정생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네번째로 체계론을 적용하여 가정생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체계론에 의하면 가정 생활은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체계이면서 동시에 그를 둘러싼 환경의 구성단위로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가는 균형체계이다. 체계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인간생태학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하며, 이러한 점에서 가족체계는 곧 생태계의 일환인 것이다. 가정관리학자들은 가족을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이 가족체계가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 또는 가정환경, 근접환경, 광역환경에 둘러싸여 이들 환경과 상호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간다고 본다(Deacon, & Firebaugh, 1988; Gross, Crandall, & Knoll, 1980). 체계론을 가정생활문제에 적용할 경우 가족원의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 가치관의 발달, 인성이나 능력의 발달, 목표의 충족등과 같은 가족을 구성하는 하위체계내 또는 하위체계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물리적, 자연적 환경등과 같은 상위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여러 문제가 파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체계론은 이들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기술적인 합리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가정 생활

문제를 밝히기 위해 인간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여러가지 관점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가정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단위로 주부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주부가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부 자신의 문제로는 주부의 건강, 무력감, 가사노동관리, 여가 선용의 문제등 심리사회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환경으로는 가장 밀접한 심리사회적 환경인 가족과 물리적 환경인 가정환경에 주목하되,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는 자녀문제, 남편과의 문제, 가족의 응집성을 다루고 물리적 환경 내지 가정환경으로는 금전자원과 주택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자연적 환경 역시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나 주부가 가정 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생태학적 관점에 주목하여 유기체, 환경, 그리고 양자간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가정생활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정생활 문제 영역을 크게 5가지 범주, 즉 중년기 위기감과 여가문제, 자녀문제, 가족 응집성, 가정경제문제, 주택 문제로 나누어 범주별로 문제의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3. 중산층의 개념 정의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신, 구 중간계급의 범주와 중복되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계층 집단으로 중류층, 중산계급, 중간계급등의 용어와 상호교환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1985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는 중간층 육성 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중간층의 범위를 정했다. 즉 자기집이 있거나 최소한 독채 전세에 거주하여 주거 생활이 안정되고 日雇나 臨時雇보다 常用雇나 自營業主로서 직업이 안정된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중산층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직업,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한 가계소득을 기

준으로 하여 중산층의 개념을 구성했다. 즉 가구주의 직업이 常用雇나 自營業主로 안정적이며, 가계소득이 월 70만원 이상<sup>1)</sup>인 가정을 중산층으로 정의하였다.

#### 4. 중년기의 특성

인간 발달은 연속적 변화의 과정으로 환경적 심리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아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Erikson(1963)은 40~50세를 장년기로 보면서, 이시기의 특성으로 생산성을 강조했으며, Havighurst(1972)는 중년기를 30~60세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그에 따른 발달과업을 제시했다. 또한 Levinson(1978)은 중년기 과도기를 40~45세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는 인생단계에 있어서 40~50세를 중년기라고 한다(김명자, 1988).

중년기에는 개인적 발달 문제와 가족내의 문제를 경험한다(Brody, 1981). 개인적 발달 문제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과정을 겪는 시기이다. 즉 신체적, 생물학적 노화에 의한 능력의 변화를 겪으며, 사회적으로는 직업생활, 사회생활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경제적 지위등에서 절정기에 달하였으나,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음을 인식하는 시기이다(김명자, 1988). 또한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경향과 경직성 경향의 증가를 경험하는등의 노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년기의 특성이다. 세대간 문제에서도 중년세대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과 자식의 장래를 위한 준비뿐 아니라 자신들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경제적인 압박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년기에는 가족내

문제에서, 개인적 문제에서, 세대간 문제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적응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II. 조사 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가정 생활의 문제가 유기적인 점을 고려하여 중년기 주부의 전반적인 가정 생활 문제를 파악하고자한 후 현재 주부가 특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각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전반적인 가정생활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McCubbin, Patterson과 Wilson(1982)의 가정 생활 사건 척도(FILE)를 기초로 한 17 문항으로 일차로 척도를 작성하였다. 일차 척도에 의한 탐색조사를 거쳐서 제거된 2문항을 더하여 모두 19문항으로 가정생활문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주부가 지각한 가족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 Porter와 Bell(1982)의 가족 적응성과 응집성 척도(FACES II)중에서 다섯 문항을 선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주부의 중년기 위기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명자(1988)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중년기 위기감에 관하여 다섯 문항을 선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여가에 관한 문항은 주부가 주로 하는 여가의 종류와 가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명목척도로 구성된 7문항을 작성하였다. 자녀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녀의 진학과정 생활 지도에 관하여 명목척도로 구성된 30문항을 작성하였다. 경제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득, 자산, 부채, 내구재의 종류와 가지수, 신용카드 보유, 노후 대책에 관하여 명목척도로 구성된 13문항을 작성하였다. 주택 문제는 주택을 처음 마련한 시기, 처음 마련한 주택과 현재 거주 주택의 종류와 규모, 주택의 재원 조달, 이사 회수, 거주 기간, 이사 계획 및 이사 원인, 이사 실현 가능성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명목척도로 구성된 12문항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전체 조사 영역은 가정 생활 문제, 주부의 중년기 위기감, 가족 응집성, 여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

1) 도시 근로자 가구의 한달 평균 소비 지출액이 63만 5천원(경제기획원, 1990)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소득 급간을 10만원 단위로 조사한 후 월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한달 평균 소비 지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인 소득 급간이 60~69만원 이하인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 주택 문제이며 전체 문항수는 91문항이다. 조사 대상자 1인당 면접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었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조사는 1990년 6월 21일 부터 7월 1일에 거쳐 직접 면접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유 의 표집법<sup>2)</sup>에 의해 추출되었는데 총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56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실 기재된 19부의 자료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중산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 119부를 제외하고 422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가정 생활 문제 정도와 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알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보았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제의 차이를 보기 위해 변수의 특성에 따라 X<sup>2</sup>검증, 중분류분석, 분산분석을 사용하고 추후검증으로 scheffé검증을 사용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와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처리는 서울대 전자계산소의 SPSSX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중산층을 규정함에 의하여, 가구주의 직업과 소득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청소년 자녀와 남편이 있는 40대 중산층 주부 422명의 응답자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는 강북지역이 50.9%, 강남지역이 49.1%이다. 교육수준은 주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2.3%로 가장 많으며, 대졸(27.4%), 중졸(18.0%)의 순이었다. 남편의 경우는 대졸이 45.3%로 가장 많으며, 고졸(24.7%), 대학원 이상(14.9%)의 순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이 35.0%로 가장 많으며, 사무직(27.9%), 관리직(20.9%)의 순이었다.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78.1%로 가장 많고, 시부모 동거가족(14.1%), 친정부모 동거가족(3.8%)의 순이었다. 자녀수는 자녀가 3명인 경우가 42.3%, 2명인 경우는 39.9%이며, 4명 이상(13.3%), 1명(4.5%)의 순으로 평균 자녀수는 2.7명이었다. 계층 귀속의식은 '중의 상'에 속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중의 하'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1.5%이었다.

〈표 III-1〉 중산층 가정 생활이 문제와 그 정도

문제	평균	문제	평균
자녀의 성적과 진학	3.58	주택 마련 및 주택 확장	2.97
자녀의 진로 및 취업	3.57	남편의 직업에서의 성공	2.97
자녀의 과외지도	3.46	가족단란의 시간, 기회부족	2.92
자녀의 배우자 선택	3.19	무력감과 의욕상실	2.86
자녀의 결혼(독립)비용	3.08	가족의 건강	2.81
주부의 건강	3.06	노후대책 마련	2.81
여가 선용	3.05	시(친정)부모에 대한 봉양	2.55
자녀의 생활지도	3.02	주택 환경	2.55
생활비의 부족	3.00	부부간 적용	2.32
가사노동의 과다	2.99		

2) 한국행정구역총람(1989)에 의하면,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인구수가 약 45대 55의 비율이므로 서울시의 22개 구를 모두 포함하면서, 강북과 강남의 조사대상자 수가 인구 비율과 유사하게 되도록 배분하였다.

### 2. 가정 생활 문제의 전반적 경향

40대 중산층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I-1〉과 같

다.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하는 가정 생활의 문제 정도를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현재 어렵다고 지각한 문제는 평균 3.5이상으로, 그저 그렇다고 지각한 문제는 평균 2.5이상 3.5 미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각한 경우는 2.5미만으로 분류했다.

이상의 기준에 의하면, 주부가 가장 어렵다고 지각한 문제는 주부를 둘러싼 심리사회적 환경에 속하는 자녀에 관한 문제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성적 및 진학, 자녀의 진로 및 취업이 가장 어렵다고 지각한 문제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까지 교육시키기를 희망하는 주부가 전체의 85%이상(한국 경제신문과 한국 갤럽, 1986)이므로,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관심이 주로 자녀의 성적과 진학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부가 자녀의 진로 및 취업을 어려운 문제로 지각하게 되는 것은 자녀의 성적과 진학 문제가 자녀의 진로와 취업 문제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의 과외 문제가 세번째로 어려운 문제로 부각된 것은, 과외 자율화 조치 이후, 다른 학생들이 과외지도를 받는다는 상황이 자녀에게 과외지도를 시켜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부가 느끼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성적 향상과 진학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주부는 자녀의 과외지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과외 지도 문제를 겪게 된다. 자녀에게 과외를 시킬 경우에는 과외비가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이 문제에는 경제적 문제도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주부가 자녀의 진학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각하는 것은 중산층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장래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녀의 대학 교육이라는 점(김선호와 김정환, 1989:131-132)을 반영하고 있다.

주부가 그저 그렇다고 지각하는 문제로는 주부 자신의 문제로 여가 선용, 주부 자신의 건강, 가사노동의 과다, 무력감과 의욕 상실등과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 비용, 자녀의 배우자 선택, 자녀의 생활 지도등

의 자녀 문제가 있었다. 그외에 남편의 직업에서의 성공, 가족 단란의 시간 및 기회부족, 가족의 건강, 부모에 대한 봉양 등의 가족 문제가 있으며, 생활비의 부족, 노후 대책 마련과 같은 경제 문제와 주택 마련 및 확장, 주택 환경 문제와 같은 주택 문제가 있었다.

주부 자신의 문제인 여가 선용, 주부의 건강, 가사노동의 과다, 무력감과 의욕 상실 문제가, 중년기에 관한 다른 연구와는 달리 크게 문제로 부각되지 않은 것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자녀 문제로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주부 자신의 발달상의 문제가 미처 표면에 노출되지 못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주부가 자신의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가 독립한 후에 노출되는 주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 자녀에 관한 문제중 자녀의 배우자 선택 문제나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 비용 문제는 진수기를 맞은 40대 후반의 주부에게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자녀의 결혼 비용 문제와 같은 것은 부모가 결혼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한국 갤럽, 1983)을 반영하고 있다. 자녀의 생활 지도는 자녀 문제 중 가장 관심이 낮아 주부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쏟는 반면, 생활지도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가능성과 청소년 자녀의 생활습관이 이미 안정되어 있어서 새롭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남편의 직업적 성공이나 부모에 대한 봉양 문제는 자녀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로 지각하는 정도가 훨씬 낮아, 40대 주부는 자녀 문제, 본인 문제, 남편 문제, 부모 문제의 순으로 어려움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물리적 환경인 주택에 관한 문제와 생활비 부족 문제가 있는데, 주택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주택 환경 문제보다는 주택 마련 및 확장이 보다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부가 주택 환경 문제에 관심이 낮은 것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택 환경은 주부가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생활비 부족은 문제가 약간 있다고 응답해서, 중산

층은 일반 생계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 비용, 과외지도시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문제로 지각한다고 여겨진다.

부부간 적응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년기가 이미 부부간 적응이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지만, 한편으로는 부부간 적응에 대한 주부의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이거나, 적응 수준이 매우 낮은 가족은 해체되어 표집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 3. 주부의 중년기 위기감과 여가 문제

#### 1) 중년기 위기감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은 중간값에 약간 못미치는 14.6점(범위:5점~25점)으로 나타나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주부의 특성에 따라 위기감 수준을 살펴본 결과, 주부의 연령과 가계소득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다. 주부의 연령이 40세 전반인 집단의 위기감이 40대 후반인 집단의 위기감 보다 낮았다.

이는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서는 위기감에 차이가 없고, 여성의 자각 연령에서만 39세 이하와 40대 집단이 50대 집단보다 위기감을 덜 경험한다는 김명자(1989)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여성의 경우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보다는 40대 후반에 중년기 위기감이 더 높으며, 50대로 넘어가면 위기감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가족 형태,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소득이 82만원 이하인

집단과 276만원 이상인 집단의 중년기 위기감이 소득이 83~275만원인 집단의 중년기 위기감보다 낮았다.

이는 소득이 높은 집단이 대체로 위기감이 낮다는 연구 결과(김명자, 1989)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며, 중산층 내에서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경우는 중년기 위기감을 느낄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중년기 여성의 경우 대부분 자녀가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로 가계지출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자녀의 대학교육기는 전 가족 생활주기를 통해서 가장 지출이 큰 시기이다. 즉 교육비, 음식물비, 피복비, 잡비의 증가로서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기 쉬운 단계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게 되므로(이기춘, 1980:162), 소득이 높은 경우가 위기감을 덜 느낄 가능성이 있다.

#### 2)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현재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43.0%), 보통이다(36.0%), 매우 만족한다(14.6%), 불만족하는 편이다(5.3%), 매우 불만족한다(1.2%)순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57.6%의 주부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동원(1981)이 1980년에 조사한 결과인 44.2%보다 더 높았다. 이는 생활 정도가 높아질수록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수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이동원, 1981)에서 보듯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인 안정감의 영향이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표 III-2〉 변수에 따른 주부의 중년기 위기감

변수	구분	평균	편차	빈도	t(F)값	grouping
연령	38~44세	14.13	3.83	239	-3.12**	
	45~51세	15.34	3.96	172		
재산소득	82만원이하	13.90	3.88	48	5.87***	a
	83~179만원	15.05	4.11	213		b
	180~275만원	15.09	3.68	92		b
	276~499만원	13.00	3.37	69		a

(\*\* \* p<.01, \*\*\* p<.001, grouping은 Scheffé-test 결과임)



남편과의 관계와 위기감, 응집성간의 관계는 응집성이 높을수록, 주부의 위기감은 낮았으며( $r=-0.31$ ,  $p<.001$ ), 남편에 만족할수록 응집성은 높았다( $r=0.35$ ,  $p<.001$ ). 그리고, 위기감이 높을수록 남편에 불만족한다( $r=-0.41$ ,  $p<.001$ ). 따라서 40대 주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만족할수록, 가족간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위기감을 덜 느낀다고 할 수 있다.

### 3) 여가 문제

40대 중산층 주부의 여가 활용 경향은 친지나 친구 방문이나 전화의 경우가 5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봉사활동, 종교활동(41.0%), 운동(22.0%), 집에서의 취미 생활(20.9%), 문화교실, 평생교육원 참여(16.8%), 영화, 음악회, 전람회 관람(16.1%)순이었는데,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낸다는 경우도 26.8%를 차지했다. 이것은 봉사, 종교 활동이나 운동을 제외하고는 주부의 여가 활동이 주로 전화나 방문, 집에서의 취미 활동처럼 가정내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중산층 주부의 여가 생활이 가정내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마리안느와 한국 갤럽, 1989;한경미와 황덕순, 1990)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별로 하는 일없이 지낸다는 경우를 제외한 6가지 여가 유형중 주부가 몇 가지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지 조사한 결과, 한가지나 두가지 유형의 여가를 보내는 주부가 64.4%이며, 한가지에도 참여하지 않는 주부가 전체의 13.3%를 차지해 주부의 여가 활동 유형이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여가활동별 참여 정도의 차이를 본 결과, 주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X^2=20.35$ ,  $p<.001$ ),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X^2=24.05$ ,  $p<.001$ ), 남편의 직업이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경우( $X^2=10.30$ ,  $p<.01$ )에 주부가 여가에 운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봉사 활동이나 종교 활동은 소득 수준이 82만원 이하( $X^2=8.49$ ,  $p<.05$ )인 경우에 더 많이 참여했다. 문화 교실이나 평생교육원에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X^2=19.14$ ,  $p<.001$ ), 남편의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 전문기술직인 경우에( $X^2=9.91$ ,  $p<.05$ ) 많이 참여하며, 영화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X^2=41.40$ ,  $p<.001$ )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가 활용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낸다'는 경우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중졸, 고졸인 경우( $X^2=22.89$ ,  $p<.001$ ), 가계소득 중 재산 소득이 없거나 39만원 이하인 경우( $X^2=6.22$ ,  $p<.05$ )에 더 많았다. 이와 같이 여가 활동 유형은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가 활동을 적극적인 여가와 소극적 여가로 나누어 보면(한경미와 황덕순, 1990), 적극적인 여가는 운동, 봉사활동, 종교 활동, 문화교실, 평생교육원 참여, 영화, 음악회, 전람회 관람이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여가 활동의 참가 여부와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운동이나 봉사,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영화, 음악회, 전람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부가 참여하는 주부보다 중년기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주부의 적극적 여가 활동 참여와 중년기 위기감

여가활동	구분	평균	편차	빈도	t값
운동	비참여	14.90	3.96	327	2.76*
	참여	13.63	3.71	93	
봉사, 종교	비참여	14.92	3.97	249	2.05*
	참여	14.12	3.83	173	
영화	비참여	14.86	3.94	354	3.19*
	참여	13.21	3.75	68	

(\*  $p<.05$ )

따라서 적극적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부는 보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부의 정서적 만족과 주부의 정신 건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관심이 요망된다.

이상에서 중년기 주부는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편이나, 40대 후반으로 갈수록 위기감을 더 느꼈다. 또한 남편과의 관계에는 비교적 만족하나, 여가 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 4. 자녀 문제

##### 1) 진학문제

성적문제에서 현재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주부는 자녀의 성적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거나(51.3%), 자주 생각할 만큼(34.8%) 자녀의 성적에 관심이 많았다. 자녀의 성적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과목에서 성적이 낮은 것(46.1%), 성적 순위가 낮은 것(28.3%), 정기 고사 성적과 모의 고사 성적의 불일치(21.1%), 현재 성적 유지(19.9%)등으로 나타났다.

과외지도 문제에서는 응답자 대다수(86.6%)가 자녀의 과외지도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외지도를 고려했던 경우에 응답자의 68.4%는 자녀에게 과외지도를 받게 했음이 나타났다. 대학 진학을 위하여 과외를 고려하거나 실행하는 일도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X^2=23.19$ ,  $P<.000$ ) 과외를 더 많이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과외를 실행한 비율도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X^2=15.17$ ,  $P<.01$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X^2=14.97$ ,  $P<.05$ ), 자녀에게 과외지도를 많이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지도 실태를 보면, 학원 수업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38.7%), 대학생 개인지도를 받는 경우(27.1%)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과외를 시키지 않는 주부의 63.6%는 경제적 부담이 큰것을 과외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과외를 시키는 경우, 중고등학생 자녀의 한달 과외비 총액은 평균 25만원 정도로 20~2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전체의 24.4%로 가장 많았고, 10~19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21.3%에 이르므로, 한달에 4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78.8%)이었다.

현재 과외를 시키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점은 경제적 부담(62.9%), 자발적 학습동기의 약화(41.4%), 시간 부족(34.8%), 생활 리듬이 깨지는 문제(21.6%)순이었다. 과외비가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과 무관해서 결국 과외비가 중산층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집단보다는 대졸인 집단에서,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 전문대졸 이

상인 집단에서 과외비 지출이 많았고( $F=5.07$ ,  $P<.01$ ), 가계소득이 180만원 이상인 집단이 8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277만원 이상인 집단이 179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과외비를 더 많이 지출하지만( $F=8.90$ ,  $P<.000$ ), 상대적인 경제적 부담감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응답자의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응답자는 자녀의 학습 동기 약화를 과외의 또 다른 문제로 지적하는 경향을 보였다( $X^2=17.14$ ,  $P<.001$ ).

과외를 받아서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52.2%는 과외지도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35.8%는 '잘 모르겠다'고, 12.0%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해서, 절반 정도의 응답자는 과외를 시키면서도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 2) 생활지도 문제

학생 범죄 증가율이 전체 소년 범죄 증가율보다 훨씬 높고, 특히 흉악사범이 증가한다(조선일보, 1990)는 사실과 중고생의 무단 결석이 많다(조선일보, 1990)는 사실에서 자녀의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응답자는 일반적으로 자녀 문제를 어려운 문제라고 지각하면서도, 자녀의 생활 지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어렵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주부가 자녀의 학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중산층의 청소년 자녀의 생활 지도와 생활 습관이 안정된 까닭일 가능성도 있다. 자녀의 생활 지도 문제에는 용돈 문제, 이성 교제 문제, 비행과 또래에 대한 동조성 문제가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자녀의 용돈 문제에서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가 주는 경우(38.7%), 부모가 같이 주는 경우(3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돈 주는 방법은 월급으로 주는 경우가 약 50%정도이며, 필요에 따라 주는 경우가 30.8%이며, 용돈 액수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한달에 평균 16,400원 정도로 나타났다.

자녀의 용돈 사용의 문제를 지각하는 실태를 알아본 결과, 반수의 응답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반면, 일부는 자녀가 용돈 사용에서 책임감이 없거

나(30.2%), 무계획적(25.2%)이라고 보고 있었다. 59.5%의 응답자는 자녀의 용돈 지출에 대해 알아서 쓰도록 간섭하지 않는 반면에 용돈 관리 내역을 알아보는 경우는 27.6%, 저축 지도를 하는 경우는 21.1%, 용돈 지출 내역을 기록하도록 지도하는 경우는 17.7%로 자녀의 용돈 지도와 관리에 대한 주부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자녀의 용돈 사용에 대한 지도가 요청된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이성 교제에 대한 조사에서 자녀가 '이성 교제를 안한다'는 응답이 54.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9%이며, '여러 친구에게서 전화, 편지가 오고 만난다'는 응답이 16.4%, '지속적으로 만난다'는 응답은 4.8%이었다. 이 응답으로 미루어 볼 때 전체 주부의 23.9%가 자녀의 이성 교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요망된다.

주부가 자녀의 비행 사실에 관해 아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자녀가 전자 오락실(30.3%)이나 만화가게(18.9%)에 습관적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자 오락이나 만화 자체의 유해성과 함께, 전자 오락실과 만화 가게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또한 주부가 응답한 청소년의 흡연이 10.6%, 음주가 14.6%인데, 이는 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의 연령이 중학생인 경우보다 고등학생인 경우에 흡연( $X^2=4.57$ ,  $P<.05$ ), 음주( $X^2=7.00$ ,  $P<.01$ ), 만화가게 상습적 출입( $X^2=5.71$ ,  $P<.05$ )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자 오락실에 많이 출입한다( $X^2=6.75$ ,  $P<.01$ ). 흥미로운 점은 자녀의 진학 문제에서 중요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밝혀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가계소득의 효과가 자녀의 생활 지도 문제에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점이다.

한편 주부는 일반 청소년의 비행 동기를 주로 친구의 유혹(77.7%), 학업부진이나 학교 생활의 부적응(72.2%), 가정불화(65.0%)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반면에 허영심(30.0%), 유희비 마련(27.8%), 우연(16.3%)때문이라고 보는 경우는 적었다. 이것은 주부가 청소년의 비행이 청소년 자신의 문제에 기인하

기 보다는 친구나 학교, 가정의 문제로 인해 유발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래에 대한 동조성 문제에서 응답자는 청소년 자녀가 또래의 비행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실제 동조행동을 보이지 않거나(48.5%),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47.3%)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도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비행에 동조한다고 한 응답이 감소하였다( $X^2=18.70$ ,  $P<.005$ ).

자녀가 비행 집단에 참여하도록 위협받거나 유혹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7.3%가 없다고 대답한 반면, 21.2%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비행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1.5%였으나, 응답자가 모르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청소년이 비행 유혹을 받은 경험은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인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평가하도록한 결과, 응답자의 반 이상(62.4%)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 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 상에서 3.67점으로 나타나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다. 이 현상은 중산층 어머니에게 생활의 주축을 이루는 인간관계는 전통 가정에서와 같이, 자녀와의 관계라는 공통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녀 관계 만족도는 경제적 수준이나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주부의 가족 응집성 지각이 높을수록 자녀 관계 만족도가 높으며( $r=.47$ ,  $p<.000$ ), 자녀가 문제 행동을 많이 하거나( $r=-0.22$ ,  $p<.000$ ), 용돈 사용에 문제가 많다( $r=-0.21$ ,  $p<.000$ )고 지각할수록 주부가 응답한 자녀 관계 만족도는 낮다. 즉 중산층 주부의 생활은 주로 자녀와의 관계가 주축이 되며, 주부는 경제적인 여유에 의해서 보다는, 가족 응집성과 자녀의 행동에 따라 자녀 관계에 대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 있다.

### 5. 가족 응집성

전체 응답자의 응집성은 평균 19.5점(범위:5점~

25점)으로 나타났다. 응집성 척도 5개 문항을 문항 분석법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각 문항은 변별력이 있었으므로, 본 조사 결과를 Olson, Porter와 Bell (1982)의 FACES II와 동일한 방법<sup>3)</sup>으로 계산하여 과잉분리, 분리, 연결, 밀착의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조사 결과는 분리와 연결 영역에 75.5%가 집중되어 있어 Olson, Russel과 Sprenkle(1983)의 연구결과에서 분리와 연결 영역이 70.4%로 나타난 것보다 더 많다.

다. 또한 중간정도의 응집성 중에서도 분리보다는 연결에 더 많은 응답자가 속한 것은 개인적인 행동보다는 '우리'를 중시하고 가족간의 단결과 화목을 우선하는 가족적 분위기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응집성은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주부가 대학 중퇴 이하인 경우의 가족 응집성이, 대졸이상인 주부의 가족 응집성보다 낮았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응집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김진희(1989)의 결과와 일치

〈표 III-4〉 응집성의 4단계

구분	과잉분리	분리	연결	밀착	합계	평균	표준편차
빈도(%)	49(11.6)	155(36.7)	167(38.8)	51(12.1)	422(100)	19.5	3.3

Olson등(1983)은 응집성이 너무 높아 밀착상태가 되면, 지나친 정제감으로 인해 가족간의 신뢰와 일치가 가족원의 개별화를 방해하며, 과잉분리가 되면 자율성이 지나치게 장려되어서 가족원은 각자의 일만을 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헌신과 애착이 제한되므로 중간 정도의 응집성이 최적의 가족 응집성을 만든다고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응집성이 적절한 정도인 분리와 연결 영역에 Olson등(1983)의 연구에서 나타난 비율보다도 더 높은 비율이 해당되어서 중산층 가족의 응집성이 바람직한 정도라고 하겠

한다.

## 6. 경제 문제

인위적 환경인 경제 수준은 본 연구의 대상이 중산층이므로 일반적 생계비 부족 문제가 저소득층 만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중산층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중산층 내에도 경제적 특성에 따라 경제 문제가 어떻게 달라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 1) 중산층의 소득 수준

중산층 가정의 소득 수준은 다음 〈표 III-6〉과 같다.

중산층 가정의 소득을 남편의 근로 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가계소득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하여 살펴보았다. 근로소득은 70~89만원인 집단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130~169만원인 집단이었다. 재산소득은 현재 재산소득이 없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19만원 이하인 집단인데 이는 중산층 가정의 가계 소득이 주로 남편의 근로 소득에 의한 것이며, 재산 소득은 소액인 것을 시사한다. 중산층 가정의 가계소득은 평균 179만원 정도로 근로 소득이 상위 20%인 집단과 하위 20%인 집단을 비교해 보면, 상위집단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222만원인 반면, 하위 집단은 73만원으로 일견 동질적으로 보이는 중산층 집단내의 소득 격차가 심한

〈표 III-5〉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족 응집성

구분	평균	편차	빈도	F값	grouping
중졸	19.07	3.55	75	3.46*	a
고졸	19.43	3.19	179		a
전문대졸	19.08	3.21	49		a
대졸	20.39	3.26	114		b

(\* p<.05, grouping Scheffe-test 결과임)

3) Olson등(1982)은 FACES II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하여 평균으로부터 평균+1 표준편차를 연결로 분류하고 평균+1표준편차로부터 최고점수까지를 밀착으로, 평균-1 표준편차는 분리로 다시 최하점까지는 과잉분리로 분류하였다.

〈표 Ⅲ-6〉 조사 대상자인 중산층 가정의 소득 분포

구분		백분율	구분		백분율	구분		백분율
근로소득	69만원 이하	7.1	재산소득	없다	32.0	가근 계로 소+ 특채 산	70~89만원	16.1
	70~89만원	21.3		01~19만원	19.4		90~119만원	16.4
	90~109만원	17.3		20~39만원	13.1		120~149만원	17.5
	110~129만원	15.2		40~89만원	14.3		150~199만원	17.1
	130~169만원	20.1		90~149만원	9.9		200~299만원	19.4
	170~209만원	10.0		150~249만원	11.6		300~499만원	13.5
	210만원 이상	9.0		250만원 이상	2.1			
계 422명	100.0	계 422명	100.0	계 422명	100.0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계소득도 상위 20%집단과 하위 20%집단을 비교해 보면 상위 집단의 월평균 가계소득이 375만원인 반면에 하위 집단은 84만원으로 약 290만원 정도의 소득 격차를 보였다. 이것은 중산층 내에서도 심한 소득 격차로 인한 위화감과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내포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산층 가정의 재산 소득과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면 근로소득이 낮은 집단이 재산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근로소득이 높은 집단이 재산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부'의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2) 중산층의 자산 보유 상황

중산층 가정에서 현재 거주 주택 이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정은 70.9%였고 29.1%는 자산이 없다고 응답해서 과반수가 넘는 가정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자산의 형태를 부동산, 주식, 정기예금, 기타 실물자산으로 나누어 보유상황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보유한 가정은 42.7%이며, 보유 부동산은 시가 1억 이하가 28.3%, 1~5억 미만이 50.6%, 5~10억 미만이 9.9%, 10억 이상이 11.2%로 시가추정액은 평균 4억 5천만원 정도이었다. 그런데 현재 거주 주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이 전혀 없다는 가정이 57.3%나 되어서, 중산층의 가계 자산 소유의 계층내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자산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26.6%였는데, 1000만원 미만이 37.8%, 1000~4999만원이 49.0%, 5000만원 이상이

13.2%이며, 보유 주식의 시가 추정액은 평균 2700만원이었다. 정기예금을 자산으로 보유한 경우는 27.6%인데, 1000만원 미만이 39.4%, 1000~4999만원이 38.3%, 5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2.3%이며, 정기예금의 평균 액수는 3870만원이었다. 기타 실물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6.2%로 소수인데, 그 추정액은 1900만원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산층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주로 주식이나 정기예금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30대 주부가 부동산 투자를 가장 유리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결과(마리안느와 한국 갤럽, 1989)와 일치한다. 주부가 교육수준이 높고( $X^2=12.46, P<.05$ )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X^2=27.29, P<.001$ ) 자산을 보유하는 정도가 높았다.

새로운 소비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소유 상황을 조사한 결과, 40대 주부는 평균 1.8개의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1개 이상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80.3%이었다. 소유하고 있는 카드 종류는 국민카드(50.1%), 백화점카드(44.6%), BC카드(43.1%), 비자카드(20.5%)순이었다. 신용카드 소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소유했다. 가계소득이 180만원 이상인 경우가 82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276만원 이상인 경우가 179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소유했다. 남편의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인 경우에 자영업인 경우보다 카드를 많이 소지했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카드를 선호하거나, 카드 회사가 주로 직장을 통해 카드를 판매하는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는 텔레비전(98.5%), 세탁기(98.0%), 전기 밥솥(86.1%), 전축(72.5%), 진공 청소기(72.0%), 비디오(69.7%)순이며, 반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전 제품은

〈표 III-7〉 변수별 신용카드 소유 상황

변수	구분	평균	편차	빈도	F값	grouping
교육수준	중졸	1.13	1.33	71	18.28****	a
	고졸	1.53	1.41	177		a
	전문대졸	2.35	1.56	49		b
	대졸	2.52	1.61	113		b
가계소득	82만원이하	1.13	1.31	48	9.35 ***	a
	83~179만원	1.68	1.49	210		a
	180~275만원	2.04	1.42	89		b
	276~499만원	2.51	1.80	69		bc
직업	자영업	1.32	1.50	139	9.27 ***	a
	전문기술직	1.77	1.31	44		ab
	사무직	1.86	1.47	114		ab
	관리직	2.31	1.67	86		b
	전문직	2.91	1.35	23		b

(\*\*\* p<.001, \*\*\*\* p.000, grouping은 Scheffé-test 결과임)

부채 상황을 보면 57.1%의 중산층 주부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사실로 미루어 약 반 이상의 가정은 부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채는 7.3%의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1000만원 미만이 60.0%를 차지하며, 사채 평균 액수는 814만원이었다. 은행 및 보험 대출은 34.2%인데, 평균 대출 액수는 3020만원이나 1000~1999만원 정도의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24.8%였다. 부채가 있는 가정의 매월 부채 상환액은 20만원 미만이 54.6%이고 20~30만원이 19.2%, 30만원 이상은 26.1%로 평균 부채 상환 액수는 37만원이었다. 이상의 응답 결과에서 반 정도의 중산층 가정은 부채가 없으며, 있는 경우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40대 중산층 가정의 내구재 조사에서 자동차 보유율은 57.5%로 나타났는데, 이는 87년의 연구 결과(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 1987)인 42%보다 증가된 것이며, 89년의 30대 주부 가정의 보유율 58.4%(마리안느와 한국 갤럽, 1989)와 비슷한 결과였다. 따라서 40대 중산층은 반이상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산층 가정이 2/3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구재

전자레인지(60.2%), 대형(400l이상)냉장고(42.3%)이었다. 냉장고 보유율이 낮은 것은 본 조사에서 대형 냉장고만을 조사했기 때문이며, 외제 보유율은 전기 밥솥이 9.7%이고, 나머지 제품은 거의 국산으로 나타나, 중산층의 소비 생활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 3) 노후 대책 실태

40대 중산층 주부는 노후 대책을 보통 정도로 어렵게 느껴서,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노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기 위해 노후 대책을 이자 배당금, 저축, 부동산 수입, 보험, 연금, 퇴직금의 6종류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저축(37.9%), 퇴직금(32.2%), 보험(28.2%), 연금(23.5%), 부동산 수입(17.5%), 이자 배당금(6.4%)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혀 노후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28.7%이었다.

노후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답자가 몇가지의 노후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가지의 경우가 32.0%, 2가지의 경우가

28.0%, 3가지의 경우가 17.1%로 나타나 평균 1.5가지의 노후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40대 중산층 주부의 노후대책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예상되는 노후 생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반이상의 주부(58.7%)가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만을 영위할 것으로 응답 해서 40대 중산층 주부는 보다 다양한 노후 대책을 세우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노후대책은 미흡하면서도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은 매우 낮았다. 노후에 기혼자녀와의 동거를 원하는지에 관해서는 '원한다'(25.0%), '혼자가 되면 동거를 원한다'(24.5%)는 응답에 비해 '혼자 살더라도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50.5%)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자녀의 결혼 직후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부의 74.9%가 동거를 원하지 않아서 1958년의 61.7%, 1980년의 64.6%(이동원, 1983)보다 동거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동거를 원하는 이유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2.6%이며, '외롭기때문'이라는 응답은 19.2%인 반면, '경제적 이유'는 1.6%에 불과해서 노후 대책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다양한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원하는 형태의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노후 생활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 노후대책의 총수는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주부가 대졸 이상인 경우에, 가계 소득이 180만원 이상인 집단이 179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노후대책을 더 많이 실시한다. 이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주부의 학력

이 대졸인 경우에 노후 대책을 많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후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많았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며, 남편의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에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경우보다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노후 대책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현재 생활비의 여유가 없다(42.9%), 자녀의 학비나 결혼비용으로 여유가 없다(56.2%)고 해서, 중산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은 현재 생활에 별로 여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비율은 5% 미만이며, 기혼 자녀와 동거하겠다는 경우도 27.3%에 불과하여 이들의 노후 문제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스스로도 88.4%가 노후에 생활비 마련을 걱정하고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으리라 예상하고 있어 노후 대책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려 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노후 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정보의 제공과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4) 경제 생활에 대한 만족도

중산층 주부의 경제 생활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다(52.1%), 만족한다(25.0%), 불만족한다(18.1%), 매우 만족한다(2.6%), 매우 불만족한다(2.1%)로 나타났다. 평균 3.04로 보통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이

〈표 Ⅲ-8〉 변수별 노후 대책 실태

변수	구분	평균	편차	빈도	F값	grouping
교육수준	중졸	1.10	1.04	75	9.51****	a
	고졸	1.36	1.01	178		a
	전문대졸	1.39	0.95	49		ab
	대졸	1.86	1.04	114		b
가계소득	82만원이하	1.00	0.95	48	9.43****	a
	083~179만원	1.32	1.06	213		a
	180~275만원	1.80	1.04	92		b
	276~499만원	1.72	0.97	69		b

(\*\*\*\* p<.0001, grouping은 Scheffé-test 결과임)

와 같이 경제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27.6%로 조사대상자의 1/4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것은 중산층이 절대 기준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나, 계층 상승 욕구에는 못미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희섭, 1986)으로 보인다. 가계소득이 179만원 이하인 집단보다는 180만원 이상인 집단의 경제 만족도가 높았다.

7. 주택 문제

1) 최초로 구입한 자가

자가 구입시기는 결혼후 평균 6.5년으로, 5년이하(55.3%), 11년이상(17.3%), 결혼 당시(14.5%), 6~10년(12.3%)의 순으로 이들이 집을 마련한 1970년대의 주택 문제가 현재에 비해 덜 심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최초 자가 구입 시기가 늦어졌다.

자가의 형태는 양옥 단독(39.0%), 한옥 단독(25.9%), 아파트(24.4%), 연립주택(9.2%), 기타(1.5%) 순으로 나타나 주로 단독 주택이 보편적이었다. 주부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경우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 주택이 많아서 주택 문화의 변화를 보였다( $X^2=20.55, P<.001$ ). 또한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처음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가 많았다( $X^2=52.37, P<.001$ ). 자가의 규모는 단독 주택의 경우 16~25평(54.0%), 26~35평(16.7%), 15평 이하(13.8%)의 순이며 평균 규모는 28평이었다. 아파트, 연립 주택의 경우는 16~25평(45.0%), 15평 이하(36.4%), 26~35평(13.9%)의 순으로 평균 20평 정도였다.

재원 조달 상황은 구입 당시의 부부가 저축한 돈으로 구입한 경우(56.9%), 금융기관 융자(29.0%), 전세 안고 입주(27.0%), 시부모 보조(19.7%), 전세금(16.9%), 친정 부모 보조(9.6%), 친척, 친구로부터

<표 III-9> 가계소득별 경제 만족도

	구분	평균	편차	빈도	F값	grouping
가계소득	82만원이하	2.69	0.72	48	13.87****	a
	83~179만원	2.96	0.75	211		a
	180~275만원	3.26	0.78	92		b
	276~499만원	3.46	0.74	69		b

(\*\*\*\* p<.000, grouping은 Scheffé-test 결과임)

<표 III-10> 변수별 최초 자가 구입 시기<sup>4)</sup>

요소(총평균:6.5)		빈도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주부의 교육수준	종졸	53	-4.1	0.40	-3.6	0.35
	고졸	138	-0.2		-0.2	
	전문대졸	42	-0.4		-0.4	
	대졸이상	81	-2.0		-1.8	
	계	314				
가계소득	82만원이하	32	-3.3	0.26	-2.2	0.16
	083~179만원	166	-0.2		-0.0	
	180~275만원	67	-0.8		-0.5	
	276~499만원	49	-1.6		-0.8	
	계	314				

R2= 0.18 \*\*

4) 표의 총평균은 최초의 자가 구입 시기를 연수로 표시한 것이며, 편차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였다.



의 차용(7.1%)순으로 나타나서 도움을 받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주택을 마련했다. 핵가족인 경우에( $X^2=12.38, P<.01$ ) 부부의 저축금으로 더 많이 재원을 조달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X^2=13.46, P<.01$ ), 전세 안고 입주한 경우가 많으며, 직계가족인 경우( $X^2=17.90, P<.001$ )에 시부모 보조가 많았다. 또한 전문대졸 이상이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친정 부모 보조를 많이 받았다( $X^2=11.52, P<.01$ ).

2) 현재 거주 주택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 관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자가(87.4%), 전세(9.8%), 월세(2.8%)로 나타났다. 자가인 경우 시가 평균은 1억 8000만원 정도이며, 58.4%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전세인 경우는 평균 전세액이 2930만원 정도이며, 월세인 경우는 24만원 정도였다. 또한 한집에 거주하는 가구수도 4가구 이상(35.1%)이 가장 많아 자가 주택을 지닌 가정과의 주거 형태 차이가 심각했다.

자가의 경우 양옥 단독(40.2%), 아파트(35.0%), 한옥 단독(10.6%), 연립 주택(9.8%), 기타(4.9%)의 순이며, 이를 처음 구입한 주택 형태와 비교해 보면 아파트는 다소 증가한 반면 한옥 단독은 현저히 감소했다. 또한 처음 구입한 주택과 현재 주택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나 연립 주택으로 이사는 경우가 다소 많이 나타났다.

전월세 주택의 경우는 양옥 단독(37.5%), 다세대주택(18.8%), 비거주용 건물(16.5%), 아파트(14.6%), 한옥단독(6.3%), 연립주택(6.3%)의 순으로 나

타나서, 자가인 경우보다 아파트 거주가 적은 반면, 다세대 주택이나 비거주용 건물의 거주 비율이 훨씬 높았다.

현재 거주 주택의 규모는 자가의 경우, 단독주택은 16~25평(21.8%), 56평이상(23.0%), 26~35평(19.0%), 36~45평(18.5%), 46~55평(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연립의 경우는 주로 26~35평(36.7%), 36~45평(25.1%), 16~25평(18.0%)의 순이었다. 단독 주택의 평균 크기는 41.5평, 아파트, 연립은 34.3평으로 현재 거주 주택과 처음 구입한 주택의 규모의 변화를 자가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보면, 10~19평정도 늘어난 경우(19.6%), 1~9평 정도가 늘어난 경우(18.6%), 30평이상 늘어난 경우(17.9%), 20~29평정도 늘어난 경우(17.2%), 변화가 없는 경우(15.6%), 처음보다 줄어든 경우(11.1%)순으로, 평균 13평 정도 늘어났다. 이를 중분류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처음 주택에 비해 현재 주택 규모가 커진 것을 알수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자가 주택에 비해 전월세 주택은 거주 가구수가 많으며, 규모도 10평이상 차이가 나며, 거주 기간도 짧아서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

자가의 경우 재원 조달은 먼저 살던 집을 판 경우(69.7%), 부부의 저축금(47.7%), 금융기관 용자(36.8%), 전세 안고 입주(16.8%), 전세금(12.9%)이 주종이었으며 처음 주택 구입시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던 시부모 보조(6.8%), 친정부모 보조(2.9%)는 줄었으며 친척, 친구로 부터의 차용(5.8%)은 여전히 적었다. 즉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는 구입 당시의 저축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주택의 경

<표 III-11>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주택 규모의 변화(자가의 경우)경우<sup>5)</sup>

요소(총평균:13.5)		빈도	총편차	ETA	손편차	BETA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	36	-14.6		-13.2	
	고졸	128	- 1.8		- 1.8	
	전문대졸	37	- 1.0		- 0.8	
	대졸이상	92	- 8.7		- 7.9	
	계	293		0.20		0.18

R2= 0.06 \*\*

5) 표의 총평균은 주택의 변화된 평수를 의미하며, 편차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였다.

우는 먼저 살던 집을 판 돈으로 주로 재원을 조달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저축금과 금융기관 용자가 재원 조달의 중요한 방법이었다. 먼저 살던 집 판돈의 경우는 전문직, 관리직, 전문기술직인 경우 ( $X^2=13.58$ ,  $P<.01$ )에 많았다. 또한 직계가족의 경우 시부모 보조가 많으며 ( $X^2=20.26$ ,  $P<.001$ ), 금융기관 용자는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인 경우에 많았다 ( $X^2=13.22$ ,  $P<.05$ ).

### 3) 주택 규모의 확대 및 축소에 대한 희망

중산층 주부는 거주하기에 적당한 집의 크기를 30~39평(36.6%), 40~49평(28.7%), 50평 이상(21.9%), 29평 이하(12.8%)의 순으로 응답해서 평균 약 40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재 주택 규모에 비해 주부가 늘이거나 줄이고자 하는 열망 정도와 현재 거주 주택의 규모의 차이인 주택 열망 성취 정도는 5~19평(39.8%), 현재 거주 주택보다 줄이기를 원하는 경우(24.2%), 0~4평(23.6%), 20평 이상(10.9%)순으로 현재보다 5평 이상 더 늘리기를 바라는 경우가 50%를 차지해 주택 확장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 4) 이사 계획과 주택 만족도

이사 계획을 보면 '이사할 계획이 없다'(47.7%), '이사하고 싶으나 집값 상승으로 어렵다'(24.8%), '주택이 좁아서 이사하고 싶다'(24.0%)순으로, 87년의 결과(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 1987)보다 주거 환경과 학군에 의한 이사 이유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사 실현 가능성은 '5~10년 내에 가능하다'(54.1%),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다'(21.3%), '집값 상승으로 어렵다'(20.0%)순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정의 49%정도는 현재 주택에 불만족해서 이사하고 싶어 하고 주택확장의 욕구는 높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보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 주택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주부는 현재 주택에 대해 보통이다(44.6%), 만족하는 편이다(28.9%), 불만족하는 편이다(17.7%), 매우 불만족한다(4.8%), 매우 만족한다(4.1%)순으로 평가하여, 만족하는 경우는 33%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1979년에 조사한 집에 대한 만족도 33%인 것(한상진과 한상연,

1990)과 비교할 때 변화가 없는 것이다. 한편 현재 주택의 크기가 클수록( $\beta=0.27$ ),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beta=0.17$ ) 주택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R^2=0.13$ ).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중산층 가정의 생활 실태와 생활문제를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서울의 중산층 가정은 역동적으로 지위상승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비교적 건강하다는 것이다. 중산층 가정이 지위 유지 및 상승을 추구하는 역동성은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와 실제 교육 지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서울의 중산층 가정의 안정성은 심리적 측면과 소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산층 가정의 중년 주부는 개인 과업보다는 가정의 집단 과업을 중시하고 있으며, 가정의 당면한 생활 과제 가운데, 자녀의 교육, 진학과 취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외지도를 고려하거나 실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중산층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고, 수입이 많고, 직업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지각하는 것은 주부가 부모세대가 확보한 지위를 자녀세대에도 유지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 중산층 가정은 응집력이 높고, 가족간 갈등이 비교적 낮은 집단적 심리 특성을 나타냈다. 응답자인 주부만 보더라도, 개인으로서 정체감 위기 수준이 비교적 낮아서, 일반적으로 중년기 주부의 정체감 위기가 높다는 예측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문제도 자녀의 개별 생활 문제가 일반적 예상과 달리,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주부나 자녀의 개별 문제보다는 집단으로서 가족의 생활에 관한 의식이 높은 것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족 공동체 의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셋째, 중산층 가정 생활의 안정성은 경제 관리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중산층 가정의 1/4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중산층 가정의 2/5가 자가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중산층의 반정도는 근로소득이외의 재산소득에 의한 가계소득의 안정성을 보인다. 한편 부동산을 소유한 가정의 부동산에 대한 현재 시점 평가액이 4억 5천만원 이어서, 부동산 소유 여부에 의해 중산층에 속하는 가정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가 편재되었음을 보여준다. 내구재의 취득이나 소비 방식을 보면, 대부분의 가정이 건전한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외비등 사교육비의 부담이 증대된 까닭인지, 응답자의 1/3은 경제적으로 노후를 위한 대비를 못하고 있는 등 중산층 가정의 노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대부분이 자가를 소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현재 주택 규모에 만족하지 않고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주택의 규모를 확장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실은 중산층 가정이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의 기회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주택확장 기대에 비해 그것의 실현이 가까운 시일내에 가능하다고 보는 비율은 아주 낮게 나타나 쾌적한 조건을 가진 주택의 확보 문제는 중년기 중산층 가정의 해결해야할 경제적 문제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겠다. 이상 4가지 결론을 통해서 보듯이 주부는 정체감 혼미를 경험하고 청소년 자녀는 생활 문제가 심각하리란 중산층 가정에 대한 일반적 예상은 기우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정은 가족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집단으로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건실한 경제관리를 하며, 역동적으로 교육을 통한 지위상승을 모색하고, 보다 안락한 생활 환경을 추구하는 집단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집단 특성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원천이 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으로 볼 수 있으나, 그와 동시에 자녀 교육 문제로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부동산 취득으로 재산 증식을 도모하는 등 역기능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원보 1990년 1/4분기", 경제기획원, 1990.
- 2) 김명자,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3) 김명자, "중년기 연구", 서울:교문사, 1989.
- 4) 김선호와 김정환, "한국의 중층 문화", 서울:일조각, 1989, 131-132.
- 5) 김진희,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6) 이기영,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권 2호, 1984, 35-59.
- 7) 이기춘, "가정경제학", 서울:교문사, 1980, 162.
- 8) 이동원, "도시 가족(서울)에 관한 연구-결혼에 대한 태도 비교:1958-1980",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9, 1981, 197-225.
- 9) 이동원, "도시 가족(서울)에 관한 연구(II)-주부의 역할 및 자녀간의 변화:1958-1980",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2, 1983, 71-93.
- 10) 마리안느와 한국갤럽, "중산층 주부 의식구조 대조사", 마리안느, 9월호, 1989, 252-259.
- 11) 마리안느와 한국갤럽, "중산층 주부 의식구조 대조사", 마리안느, 10월호, 1989, 260-263.
- 12) 마리안느와 한국갤럽, "중산층 주부 의식구조 대조사", 마리안느, 12월호, 1989, 394-399.
- 1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한국의 중산층", 한국일보사, 1987.
- 14) 임희섭,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교문사, 1988.
- 15) 조선일보, "학생 범죄 급증-포악화", 1990년 6월 8일자.
- 16) 조선일보, "가출동 이유 장기결석", 1990년 7월 5일자.
- 17) 한경미와 황덕순, "주부의 여가 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권 1호, 1990.
- 18)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 "가정 생활과 자녀 교육", 1983.
- 19) 한국 경제 신문과 한국 갤럽, "한국 주부의 의식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 한국 경제신문, 1986.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원보 1990년

- 20) 한국 행정 구역 총람 편찬회편, “한국 행정 구역 총람”, 서울:선문사, 1989.
- 21) 宮崎禮子, 伊藤セツ편, “가정관리론”, 有斐閣, 1978.
- 22) Andrews, F. M., & Withey, S. B., “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Y:Plenum Press, 1976.
- 23) Andrew, M. P., Bubolz, M. M., & Paolucci, B., “An Ecological Approach to Study of the Family”, Marriage & Family Review, Spring/Summer 1980, 29-49.
- 24) Brody, E. M.,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1, 1981, 471-180.
- 25) Bubolz, M. M., Eicher, J. B., & Sontag, M. S., “The Human ecosystem:A Model”, Journal of Home Economics, Spring 1979, 28-31.
- 26) Campbell, A, Converse, P. E., & Rogers, W. 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 Y.:Russel Sage Foundation, 1976.
- 27) Compton, N. H., & Hall, O. A., “ Foundations of Home Economics Research-A Human Ecology Approach”, MINN.:Burgess Publishing Company, 1972.
- 28) Deacon, R. E., & Firebaugh, F. M., “Family Resource Management-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Boston:Allyn & Bacon Inc., 1988.
- 29)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 Y.:Norton, 1963.
- 30)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New Jersey:Prentice Hall, 1980.
- 31) Havighurst, R. L.,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 Y.:David Mckay, 1972.
- 32) Levinson, D., “the Seasons of a man's life”, N.Y.: Knopf, 1978.
- 33) Morrison, B. M., “The importance of a Balanced Perspective: The Environment of Man ”, Man-Environment System, Vol 4, No 3, 1974, 171-178.
- 34) McCubbin, H. I., Patterson, J. M., & Wilson, L. R.,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Minnesota: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2, 69-88.
- 35) Olson, D. H., Porter, J., & Bell, R.,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Wilson(Eds.) Family Inventories,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2, 5-24.
- 36) Ol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1983, 69-83.